

고진영 “첫 메이저 퀸은 나야 나”

시즌 첫 메이저 세브론 챔피언십 내일 티오프
리디아 고·벨리 코르다와 3파전 뜨거울 듯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총상금 510만 달러·약 66억 3000만원)이 20일(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우들랜드의 더 클럽 칼턴우즈(파72·68240야드)에서 열린다.

여자 골프 메이저 대회는 총 5개이며 이 대회를 시작으로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7월 US여자오픈과 에비앙 챔피언십, 8월 AIG 여자오픈으로 이어진다. 세계 굴지의 정유회사인 세브론이 개최하는 대회 상금은 ANA 인스퍼레이션 때보다 60% 가량 올랐다.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ANA 인스퍼레이션 등의 이름을 거친 이 대회는 여자 골프 5대 메이저대회 중 첫 문을 여는 무대다. 지난해까지 40년간 정든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컨트리 클럽에서 대회가 열렸을 때에는 우승자가 캐디 등과 함께 코스내 ‘포피스 폰드’에 다 이방하는 전통적인 세리머니가 있었지만 올해엔 장소가 바뀌었다.

세브론 챔피언십은 지난해 타이틀 스폰서가 바뀌면서 대회 이름도 변경됐고, 개

최 시기와 장소까지 모두 바꿨다. 지난해까지 해마다 4월 첫 주에 열리던 이 대회는 올해부터 미국 텍사스주로 바뀌었고, 개최 시기도 4월 하순으로 늦춰졌다.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설계한 더 클럽 앳 칼턴 우즈는 2001년 개장 이래 처음 메이저 대회를 치른다. 대회 홈페이지는 “58명의 LPGA 챔피언들이 거둔 승수는 247승이며, 지난해 메이저 우승자 5명을 포함해 29명의 메이저 챔피언들이 이룬 메이저 우승도 41승에 달한다”고 전했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를 맞아 세계 랭킹 20위 이나가 전원 출전하는 등 정상급 선수들이 빠짐없이 나온다. 세계랭킹 50위까지 범위를 넓혀도 42명이 참가한다. 세계랭킹 1~3위인 리디아 고(뉴질랜드), 벨리 코르다(미국), 고진영의 트로이카 경쟁이 이번 대회에서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결혼 후 첫 메이저 대회를 앞둔 리디아 고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이 대회 패권 탈환에 도전한다. 코르다는 2021년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 이은 메이저 2승을 노린다.

지난해 하반기 손목 부상으로 고전하다가 3월 LPGA 투어 HSEC 월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반등에 성공한 고진영은 2019년 이 대회와 에비앙 챔피언십 이후 끊긴 메이저 우승으로 투어 15승째를 장식하겠다



세계랭킹 3위인 고진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에 참가한다.

AP=연합뉴스

는 각오다. 고진영은 이날 초 LA 오픈 이후 휴식과 스윙 및 컨디션 점검을 마치고 3주 만에 출격한다. 밀러스 집에서 자동차로 3시간 남짓 거리의 새 대회 코스에서 탄생하는 첫 ‘메이저 퀸’을 꿈꾼다.

LPGA 투어 4승 가운데 3승을 메이저에서 따낸 전인지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 전인지는 2015년 US오픈,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 지난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

서 우승했으며, 이 대회 또는 AIG 여자오픈 타이틀을 추가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머가 된다.

지난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였던 AIG 여자오픈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 기회를 놓친 전인지가 올해 첫 메이저 대회에서 다시 ‘메이저 퀸’이 될지 관심을 끈다. 커리어 그랜드 슬램은 한국 선수로는 박인비가 유일하게 달성한 기록이다.

이들 외에 한국 선수로는 2017년 우승자인 유소연, 2020년 US오픈 우승자인 김아림, 이정은, 김세영, 박성현, 지은희, 최혜진, 안나린, 최운정, 양희영, 신지은, 유해란, 이미향 등이 출전한다. 한국 선수들은 이 대회에서 2017년 유소연, 2019년 고진영, 2020년 이미림 등 4년 사이에 세 명이 우승했고, 2021년 패티 타와타나깃(태국), 지난해에는 제니퍼 켈프(미국)가 정상에 올랐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아르헨티나 ‘U-20월드컵’ 인니 개최 박탈 덕봐

아르헨티나가 인도네시아 대신 U-20(20세 이하)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본선 진출이 무산됐던 U-20 월드컵 행운티켓을 거머쥐는 주인공이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8일 (한국시간) “아르헨티나가 5월로 예정된 U-20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됐다”며 “본선 조 추첨은 2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이로써 2001년 이후 22년 만에 U-20 월드컵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U-20 월드컵은 당초 5월20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내에서 본선 진출에 성공한 이스라엘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FIFA는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U-20 월드컵 개최를 긴급히 취소했고 인도네시아에게 부여된 U-20 월드컵 출전권도 회수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열린 남미 U-20 선수권대회에서 4강에 들지 못해 U-20 월드컵 출전이 좌절된 상태였다. 하지만 세계 축구 강국인 아르헨티나는 인도네시아가 개최권을 박탈당하면서 행운의 출전 기회를 얻었다.

아르헨티나가 자력으로 본선 진출을 하지 못했지만 ‘전통의 강호’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U-20 월드컵 대회에서 그간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2001년 개최 당시를 포함, 역대 최다인 6차례나 정상에 올랐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이번 U-20 월드컵대회는 내달 20일부터 6월11일까지 개최된다.

참가국은 총 24개국으로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한국, 이라크, 일본, 우즈베키스탄, 잠비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튀니지, 도미니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피지,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이다. 임한상 기자 hsrin@skyedaily.com



U-20 월드컵 개최 예정 당시 홍보 영상. PSSI TV

체벳, 보스턴 마라톤 2연패... 킵초게는 6위

2시간 5분 54초로 우승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다.

체벳은 18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제127회 보스턴 마라톤에서 42.195km 풀코스를 2시간05분54초

에 완주하며 남자부에서 우승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2시간05분51초로 우승한 체벳은 2년 연속 보스턴 마라톤을 제패하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지난해 11월 뉴욕 마라톤까지 포함하면 3개 대회 연속 우승이다.

가브리엘 게이(탄자니아)가 2시간06분04초로 2위, 벤슨 키프루토(케냐)가 2시간06분06초로 3위를 차지했다.

체벳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3위로 들어온 친구 킵루토에 대해 “킵루토와 함께 훈련했다. 킵루토는 형제 같은 친구”



17일(현지시간) 열린 제127회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남자부 에벤스 체벳(왼쪽)과 여자부 우승자 헬렌 오베리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보스턴 EPA=연합뉴스

라며 “1km를 남기고 킵루토에게 ‘자, 가자’라고 말했다.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고 말했다.

체벳의 2연패만큼이나 이번 대회에서 눈길을 끈 건 ‘킵초게의 부진’이었다. ‘역대 최고 마라토너’로 손꼽히는 킵초게는 2시간09분23초로 자신의 마라톤 풀코스 기록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내며 6위에 그쳤다.

남자 마라톤 최고 기록(2시간01분09초)을 보유하고, 이 대회 직전까지 17번의 마라톤 풀코스 대회(올림픽 포함)에 출전해 15번 우승한 킵초게에게 이날의 성적표

는 왠지 낮설었다. 킵초게가 자신이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을 놓친 건 2020년 런던 마라톤(2시간06분49초 8위) 이후 3년, 5개 대회 만이다.

킵초게의 목표는 세계육상연맹(IAAF)이 인정하는 ‘6대 메이저 마라톤’(베를린·런던·시카고·뉴욕·보스턴·도쿄) 우승이었다.

킵초게는 ‘6대 메이저 마라톤’ 가운데 런던(4회), 베를린(2회), 시카고(1회), 도쿄(1회)에서 월계관을 썼으나 보스턴과 뉴욕에서는 아직 무관이다.

킵초게는 경기를 마친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상에 보장된 결과는 없다”며 “이번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임한상 기자 hsrin@skyedaily.com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 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